

'하균 神'의 선구안... '영혼수선공' 서도 통했다

시청률 4.7%로 출발 연일 상승세 앞서 방영한 '어서와'의 5배 뛰어 마음의 병 치료... 시청자 반응 굵

"마음의 병에 대해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배우 신하균이 9년 만에 의학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꺼낸 포부이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겠다는 그가 시청률 높에 빠진 KBS 2TV 평일 미니시리즈의 구원투수 역할까지 맡는다.

신하균 주연의 KBS 2TV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이 6일 첫 방송한 1, 2회의 시청률이 각각 4.7%, 5.2%(닐슨코리아)

를 기록하면서 출발했다. 2주째인 13일에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 안방극장에 안착했다.

앞서 같은 시간대 방송한 김명수·신예은 주연의 수목드라마 '어서와'와 비교하면 반응은 확연하다. '어서와'의 마지막회 시청률은 각각 0.8%, 1%를 기록했다. 골육에 가까운 시청률에서 단숨에 4~5배가 뽐 셈이다. 이에 더해 장기용·진세연 주연의 월화드라마 '본 어게인' 역시 시청률 2%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KBS 입장에서는 신하균의 등장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봤다.

사실 신하균이 안방극장에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별칭은 '하균 신(神)'이라는 닉네임이다. 영화 출연에 비해



드라마 참여 횟수는 적지만 시청률 면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기에 얻은 수식어이다. 작품 선구안도 탁월하지만 경력 23년에 이르는 연기력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신하균이 KBS 미니시리즈의 구원투수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적' 때문이기도 하다. 2018년 방송한 드라마

'나쁜 형사'의 타이틀롤을 맡아 활약한 그는 당시 시청률 참제기에 빠진 MBC 미니시리즈에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으로 꼽힌다.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10%대에 진입하는 기록을 주도하기도 했다.

신하균 효과는 이번 '영혼수선공'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청률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진다. 2011년 출연한 KBS 2TV 의학드라마 '브레인'과 비교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생사를 오가는 피 튀기는 의학드라마가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사람들의 온기로 채운 이야기란 점이 시청자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신하균은 제작발표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블랙간사춘기 2막 "내 음악 보여주고 싶다"

미니앨범 '사춘기집 II' 첫 홀로서기 안지영 "우지윤과 불화설 사실 아냐"

'음원 강자' 블랙간사춘기가 제2막을 시작한다. 데뷔 후 여성 듀오로 활동했던 블랙간사춘기가 최근 멤버 우지윤이 팀을 떠나면서 안지영 1인 체제로 출발하며 13일 신보를 발표했다. 내놓은 곡마다 차트 '줄 세우기'를 하며 여성 팬들을 사로잡는 등 인기를 과시했던 만큼 새로운 변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4월 초 팀을 재편하자 때아닌 불화설이 제기됐고, 비슷한 시기 김근태 국민연가 청년비대표 후보가 블랙간사춘기 등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차트 조작 정황을 주장해 자연스럽게 이번 컴백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블랙간사춘기 측과 김근태 후보 측이 차트 조작이 없음을 확인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블랙간사춘기는 이날 오후 새 미니앨범 '사춘기집 II 꽃 본 나비'를 발표하기에 앞서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컴백 전 불거진 '돌발(?)'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혼자 하게 돼 부담이 크다"며 "4년간 함께 하고 얼굴을 보던 친구가 없어지다 보니 걱정이 된다. 작업하면서도 공

허하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을 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불화설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우지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으로 블랙간사춘기로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안지영이 홀로 준비한 '사춘기집 II 꽃 본 나비'는 지난해 4월 나온 '사춘기집 I 꽃기운'과 이어진 앨범으로, 사랑스럽지만 위태롭고 불안한 사춘기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며 "친구들, 팬 분들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내 모습, 내 감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새 앨범을 발표하기 전 엑소 백현과 협업한 신곡 '나비와 고양이'가 각종 음원차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두고 "그동안 다른 가수에게 피쳐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의 목소리와 감정이 저와 조화롭게 잘 어울려 음원성적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만족스럽고 고맙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여성 듀오에서 팀을 재정비해 1인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블랙간사춘기의 안지영이 13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선을 다해 음악을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진제공 | 쇼파르뮤직

원픽! 오늘 뭐 입지?



청청 & 베이지... 스타들의 봄 컬러

조명이 꺼져도 카메라가 없어도 빛나는 얼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헌신해온 의료진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스타들의 봄 패션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꾸민 듯 안 꾸민 '꾸안꾸' 스타일의 교과서나 다름없다.

모델 장윤주와 배우 정우성의 선택은 '청청' 패션이다. 일찍부터 올해 봄 트렌드로 꼽힌 상·하의를 데님으로 맞춰 입는 '인싸템'을 스타들도 놓치지 않았다. 계절 분위기를 감안해 '진청'이 아닌 '연청'을 택한 센스에도 시선집중! 마침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이 2020년의 색상으로 '클래식 블루'를 선정하면서 청청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봄이 가기 전 한 번쯤 도전해볼 직하다.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 배우 송혜교와 한예슬의 선택은 청초한 매력을 강조하는 베이지 계열의 블라우스이다. 무심하게 톡 걸쳤는데도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뭔가 밋밋하다 싶으면 송혜교처럼 골드 목걸이를 매치하는 것도, 한예슬처럼 아이라인과 립라인을 선명하게 그린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일 듯. 이혜리 기자

남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주사시술~!!

주사시술 만으로 간단하게 복합확대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 세계적 의료기업 콜로플라스트 2년 연속 초청으로 런던, 미국 글로벌 학술대회 masterclass연수

늘푸른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 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캡슐형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 ▶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 ▶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늘푸른비뇨기과의원 02) 2272-5588 / www.egclinic.co.kr
종로3가역 14번출구앞 6층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108-증-38478호